

용·여 뜨니 마포도 ‘들썩’... ‘억’ 소리나는 강북 집값

〈용산·여의도〉

Q 르포 | 마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니

재개발 계획에 낙수효과 특목호가 뛰고 매물 회수후 관망도

마포구 소형아파트 10억대 진입 지난 1월 8.3억원대 아파트 10억

#. 박 모씨(36)는 서울 마포구 ‘라’아파트 매매 직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주인(매도자)이 이를 만에 매가가 2000만원 더 올랐기 때문이다. 매수자가 망설이자 집주인은 “앞으로 마포 일대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매물을 회수해버렸다.

서울 마포일대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재개발 계획이 불을 지폈다.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인접 지역인 마포까지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은 하루아침에 수 천 만원씩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며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잘 나가던 마포, 더 잘 나간다

“‘라’아파트요? 매물이 아직 있는지 확인해봐요.”

지난달 31일 마포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시로 아파트 물건을 확인했다. 최근 들어 매물이 일찍 팔리거나 회수돼 문의가 들어오면 재확인해야 한다고 중개업자들은 말했다.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인천이나 부산 등 지방에서도 투자자들이 자주 문의·방문한다”며 “워낙 아파트 가격이 자주 올라서 잠깐 망설이면 매물이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엔 박원순 서울 시

장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여의도·용산 일대 재개발 계획)’이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꾸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역은 서울역까지 지하화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과 쇼핑센터를 들이고 각종 광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역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남 일대와 견줄 정도로 급격히 치솟고 있다. 그러자 인접해 있는 마포구까지 기대 심리가 확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2% 떨어진 가운데, 서울은 0.23%에서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개발호재(동대문구 등), 직주근접(마포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특히 강북권에선 마포구가 0.56% 올라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포구 아파트값은 5.91% 상승했다.

B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는 워낙 교통 여건이 좋아서 수요가 높고 가격도 상승세였다”며 “여기에 최근 여의도·용산 집값이 뛰면서 같이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여의도·용산보고 집주인들 ‘뒷집’

실제로 마포구의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 대에 진입했다.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대표적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59.95㎡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8억3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지난 5월엔 9억9500만원(18층)까지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마포 일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올랐고, 현재는 10억 3000만원~10억 5000만원 선에서 매물이 나와 있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84㎡도 지난 1월 저층은 9억원대(9억7500만원·2층)였으나, 5월 12억8500만원(7층)으로 치솟았다. 현재는 같은 타입 층층이 13억 2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114.73㎡도 올해 1월 12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중순엔 14억원(5층)에 팔렸다.

공덕동 ‘래미안공덕 5차’ 59.95㎡도 지난 1월엔 6억8000만원(1층)~7억8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이어 3월 7억9000

만원(10층)~8억9500만원(13층), 6월 말 9억 원(8층)에 거래됐다가 지난 주말엔 9억 4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용강동의 경우 마포역과 인접해 있는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59.98㎡ 타입이 6월에 10억원(9층)~10억2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1억원에 호가되고 있다. ‘래미안마포리버웰’도 59.98㎡이 올 1월 9억원(12층)에 팔렸는데, 현재는 저층도 11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C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말에 9억2000만원에 내렸던 매물을 월요일에 2000만원 더 올리라고 하더라”며 “최근 1000만~2000만원 올리는 건 종종 있는 일인데 이마저도 회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의도, 용산의 집값 상승세를 보고 하반기엔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oseoul.co.kr

롯데월드타워, 2억달러 규모 세계최초 지속가능채권 발행

그린본드와 소셜본드 결합된 형태 사회적 프로젝트 투자금 마련 목적

롯데월드타워가 지난달 31일 사회적 기여 목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해외 자본시장에서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번 지속가능채권의 만기는 3년, 발행 금리는 3개월 리보(Libor) + 92.5bp(1bp = 0.01%p)이다.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시장은 해외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본드 발행액은 총 1555억 달러, 소셜본드는 총 156억 달러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이 발행됐고 지속가능채권은 이번이 두 번째 발행이다. 롯데월드타워는 민간기업으로서 전 세계 초고층 빌딩 중 최초로 달러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롯데물산이 이번에 발행한 지속가능채권은 그린본드와 소셜본드가 결합된 형태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설비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기초로 하고, 소셜본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프로젝트의 실행에 근간을 둔다.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가 설정한 발행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발행원칙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프로젝트 평가와 선택의 절차, 수익의 관리, 보고 등 4개 우선 요소로 구성되었다.

롯데월드타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발전 및 운영을 고려했다. 완공과 동시에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GBC)로부터 세계 신축 초고층 빌딩으로는 처음으로 LEED GOLD 인증을 받았고, 내셔널 엔지니어링 액셀런스 어워즈 본상도 수상했다. 현재 수축열 및 지열 냉난방시스템, 태양열 집열판,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중수 및 우수 재활용, 연료전지 설치, 생활하수 폐열 회수 등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에너지 사용량 중 15%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해 롯데월드타워는 직간접적으로 약 3만 3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롯데월드몰을 포함해 상시 고용인원은 9200여명이고, 이 중 사회적 일자리는 약 900여개다.

박헌철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발전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MW Korea



BMW 코리아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BMW 코리아는 일련의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차량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EGR 모듈 교체와 EGR 파이프를 클리닝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리콜에 앞서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고객분들께는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전국 61개 서비스 센터 및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를 24시간 운영하여 일일 약 1만여 대의 안전 진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즉각 점검을 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요청 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렌터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렌터카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점검 후, 안전 진단 확인서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차량을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으신 이후에도 EGR 모듈로 인한 화재가 발생 시 동급의 신차로 교환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BMW 코리아 및 BMW 공식 딜러사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전사적으로 조속히 리콜을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주) 임직원 일동

대상차종 확인 및 서비스 안내

1. 리콜 대상 차량 확인

- BMW 코리아 홈페이지 리콜 대상 차량 조회 서비스
www.bmw.co.kr/ko/topics/owners/bmw-recall.html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국토부 자동차 리콜 신고 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jsp/recall/recallSearch.jsp

2.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및 리콜 서비스 예약처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BMW 예약 전용 이메일(service@bmw.co.kr)
- BMW Plus 어플리케이션(리콜 예약만 가능)